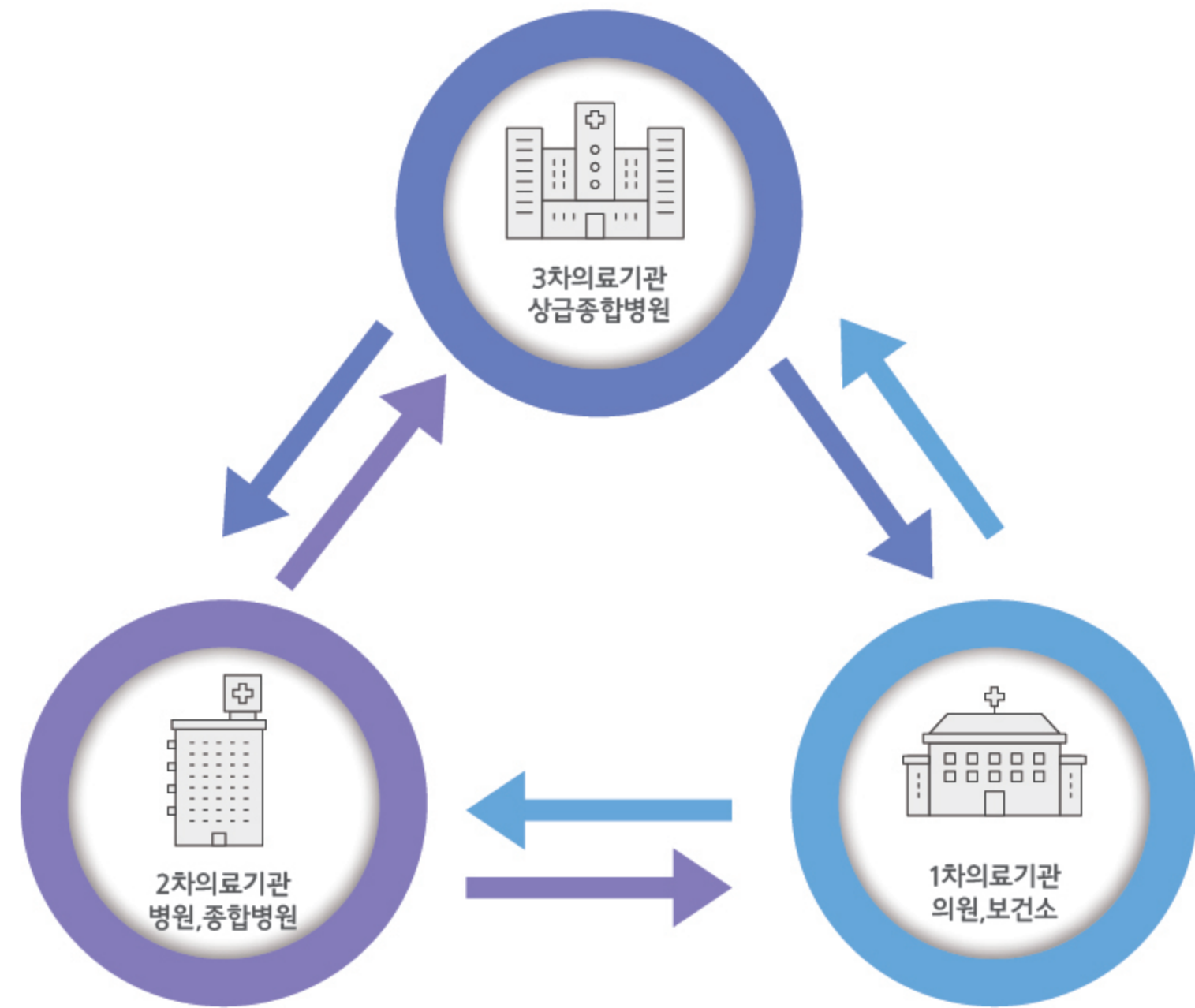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환자 동의하에 병원 간 CT·MRI, 진단·처방 등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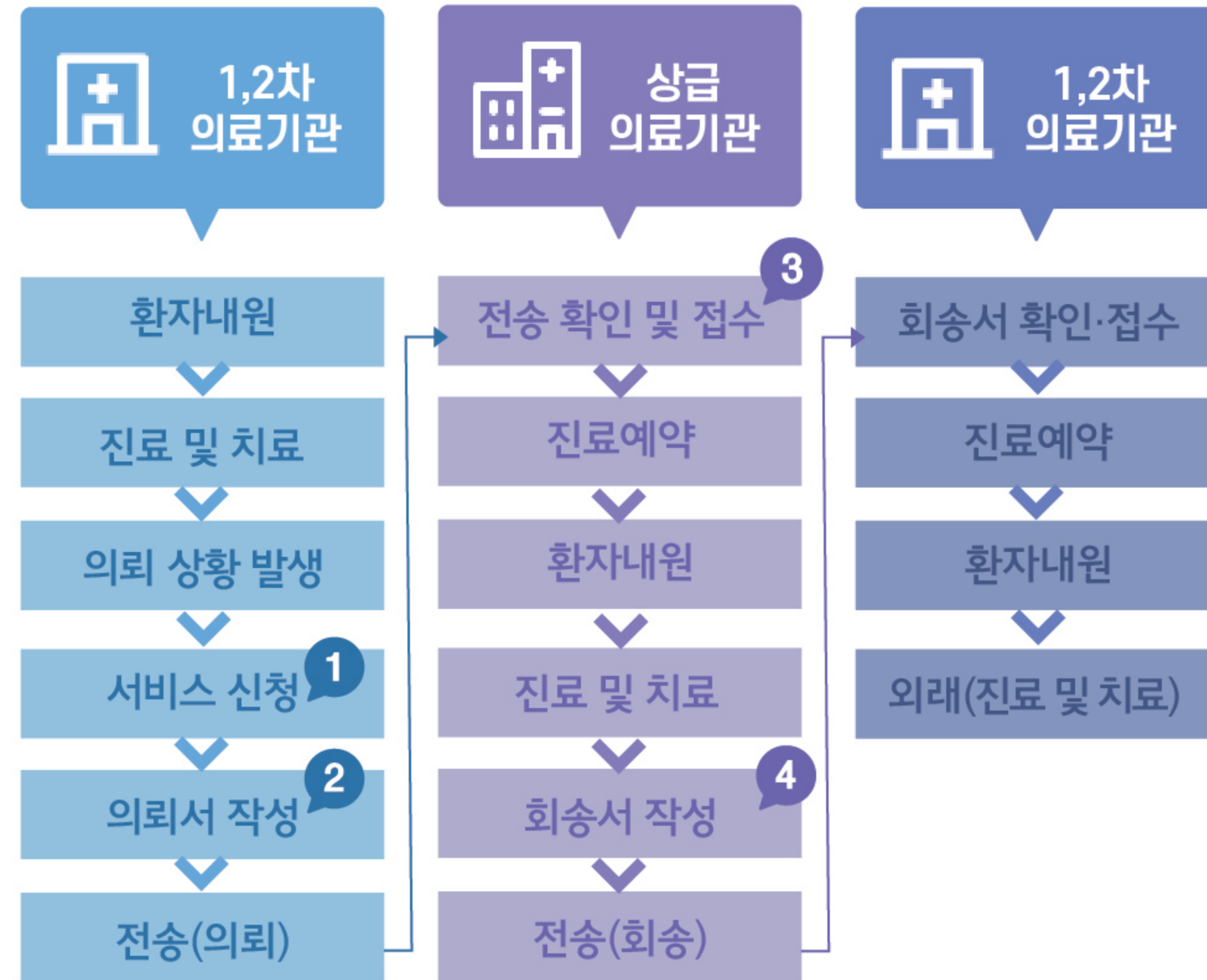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환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오진의 위험성이 줄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



환자와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참여 신청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동의서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 (진료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이나 온라인 포털(mychart.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까지 유효합니다.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 1666-7598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절차



- 1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2 의뢰서 작성(의뢰 대상 병원, 대상과 등 선택)
- 3 타기관 의뢰서 전송 확인 및 접수
- 4 회송서 작성(회송 대상 병원 선택)

진료정보교류 동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방법1] 대국민 포털을 통한 동의
 진료정보교류 포털(마이차트, mychart.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방법2] 사업참여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동의(전자 또는 서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진료정보교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
[참여의료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http://mychart.kr) → 사업소개 → 참여병원 찾기

(참여병원 찾기QR)

청렴 세상
 당신의 평생 주치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대한민국 의료를 잇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가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건강해집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언제나 환자와 병원을 이어줍니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진료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의료진이 환자의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해 신속하게 환자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료서비스

환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부터 의료진은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병력까지 고려한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의료관계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를 지켜냅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어디서나 환자와 병원을 이어줍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통해 의료기관 간 다양한 임상기록과 진료기록이 교류되어, 전국 어디서나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진료정보교류를 활용하면 의료기관 이송 간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별 맞춤형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진료정보의 휴대/전달 용이

환자의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를 챙겨야 했던 이전과 달리,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의 송수신이 가능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대기시간 감소

정보화로 인한 업무처리시간의 감소로 병원 행정 업무가 줄어들어 의료인이 더 많은 시간을 환자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분들도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중복없는 건강한 의료서비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의료기관 간 협진체제로 중복 처방을 없애고 오진의 위험성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리에방 의료중심으로 변화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이 환자를 더 잘 알게 되어 환자는 자신에게 꼭 맞고 더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치료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관리 및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변화 될 것입니다.

